

‘펫로스 증후군’ 방치하면 독 된다

반려동물과 이별로 앓는 증상 방치하면 우울증 변질 수 있어 추억 떠올리는 것도 극복 도움 비반려인 이해와 배려도 중요

A씨는 사랑스러운 몰티즈 동글이와 1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다. 같이 뛰어 놀고 뒹굴었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렀고, 나이가 든 동글이는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A씨는 동글이를 보낸 후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B씨는 우연찮게 유기견 초롱이를 입양했다. 입양 초반 눈빛이 불안하던 초롱이는 차츰 안정을 되찾았고, B씨는 사랑으로 초롱이를 감싸 안았다. 초롱이는 B씨의 자녀들과 좋은 친구가 됐다.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초롱이는 나이가 들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B씨는 초롱이를 떠나보내고 꿈속에서도 초롱이를 볼 정도로 초롱이를 그리워하고 있다.

사람보다 더 살가운 관계였던 반려동물이 반려인의 곁을 떠나면, 반려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은 충격을 받은 반려인은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을 앓게 된다.

펫로스 증후군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칫 우울증으로 발전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해 펫로스 증후군은 우울증과는 결이 다르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의 슬픔, 즉 애도 반응으로 인한 우울은 우울증의 분류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펫로스 증후군을 제대로 대처해야 우울증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일단, 반려동물이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내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공허함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하고, 끝없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한다. 일단 현실을 인정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슬픈 감정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되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남겨진 반려인은 ‘펫로스 증후군’을 앓게 된다. 전문가들은 ‘펫로스 증후군’을 제대로 대처해야 우울증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진제공 | 펫노트

억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이 좋아했던 물품, 장소, 음식 등을 보며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다. 함께 했던 시간을 되짚어보는 것만으로도 반려동물을 애도하는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최근에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각자 즐거웠던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애도하면 그것만으로도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에 대한 비반려인의 배려도 중요하다. 국내 전체 가구 중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반대로 말하면 4분의 3은 키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려동물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 펫로스 증후군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대상을 잃은 반려인에 대한 배려다. 그러한 배려 문화가 펫로스 증후군을 앓는 반려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아이러브펫

스포츠동아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13



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포함 반려인가구 통계 정확해진다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우리나라 반려동물 숫자 추정치는 대략 얼마쯤 될 것이라는 추측만 있었다. 표본이 1000~5000명밖에 되지 않는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을 하다 보니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웠다.

정부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면서 이 같은 고민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2020 센서스)에 따르면 신규조사항목 중 반려동물이 눈에 띈다. 반려동물 항목은 ‘가족구조 변화’ 섹션에 추가됐고,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 등의 항목과 함께 신설됐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된다. 이 비율을 우리나라 인구에 대입하면 약 1000만 명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000만 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검역본부가 지난해 전국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비율은 약 26.4%였다.

이 조사에서 추정한 반려동물 수를 따져보면 개는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이 1000만 명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해 정확도가 비교적 낮은 추정치이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세밀한 통계가 도출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펴기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동물도 코로나19 위험…“사람에 전파 증거 없어”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5마리째 미질병센터 “동물과 거리두기 필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동물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사람과 동물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물이 인간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릴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폭스방송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각) 텍사스주 북부 포트워스에서 2살짜리 반려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반려견은 주인이 코로나19에 먼저 감염된 뒤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전체에서 5번째로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동물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한 이후 감염됐다고 알렸다. WHO도 농장에서 자란

밍크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대부분 농장 노동자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혔다. CDC는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견해는 WHO의 입장과 일치한다. 다만 CDC는 “반려동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이 확인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을 막자는 취지다.

“예컨대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다른 사람들과 6피트(약 1.8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반려묘는 실내에 머무르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CDC는 설명했다.

또한 CDC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특히 반려동물 및 다른 동물들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반려동물을 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개, 고양이)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이!
씩을 때로 씹어 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아!
이생망, 헬조선, 흙수저, 자살상을 퍼뜨리며 자살하는
-1030세대(39세까지) 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하이우분투(주)
대표전화
1644-6733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종교재단" 등극 !!!

● 고문단 최성규 목사 / 영신영 목사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김석민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영 목사 010-4688-3491

세계교회 대혁신 투자 총괄전도사 **한우 류창열** 회장

● 서울 한우 010-2248-0815 / 황비 010-5647-5428 / 백민준 010-6462-6712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주지 010-9339-8649 / 김광수 010-3207-8291 / 김명배 010-8290-8801
강영석 010-3274-5289 / 장신오 010-2209-1142 / 이순지 010-9725-2789 / 최복남 010-5661-4167 ● 부산 김창주 010-9652-6452 / 이체영 010-7135-2369 / 백상석 010-7309-1000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주영원 010-4241-7008 / 조현교 010-7374-4111 / 류영순 010-6650-7567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송희정 010-7712-2202 / 김용환 010-3422-5998 / 전달만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850 / 이주환 010-4489-9789 / 박병두 010-8259-9960
김신호 010-6543-3126 ● 울산 지영필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 창원 최정희 010-8231-0776 / 장인태 010-7586-7985 / 이철배 010-3572-4616 ● 천안 김혜덕 010-6258-3510
오명숙 010-88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899 ● 김도 정재홍 010-6416 1888 ● 이현 하현석 010-4707-2659 / 한선희 010-5177-9479
● 여주 장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충북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 윤이나 010-8763-6742

